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정구철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피험자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총 82명의 학생들이었으며, 실험군이 52명, 대조군이 30명이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설계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분석으로 수행하였다. 부모의 자서전은 프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에필로그로 구성하였다. 자서전의 각 장은 부모의 주요 사건을 기술하는 성장서사 부분과 대필자의 느낌을 기술하는 성찰서사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간 관계를 유의하게 증진시켰다. 특히, 하위요인 중 친밀, 존경 요인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엄격 요인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애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셋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효과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서전 | 가족관계 | 애착 | 의사소통 | 글쓰기 프로그램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e subjects were 82 college students(52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in an university in Seoul.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y ANCOVA using the SPSS 23.0 program. Parent's autobiography consisted of prologue,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 and epilogue. Each chapter of the autobiography consisted of a part of the growth narrative describing the main events of the parents and a part of the introspection narrative describing the writer's feeling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significantly promoted parent-child relationships. Second,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s significantly increased parent-child attachment. Third,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effect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 keyword : | Autobiography | Family Relationship | Attachment | Communication | Writing Program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에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2017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017년 8월 18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음.

접수일자 : 2017년 06월 23일

수정일자 : 2017년 07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02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제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부모가 되어보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와 전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자녀가 단지 부모의 나이에 도달했다 해도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모로서의 의무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그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개인의 고유한 경험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나 삶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 되어 보기’는 바로 이해하고 싶은 그 부모에 대해 전인적으로 아는 데서 시작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각 개인이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그러므로 부모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바로 그 부모의 성장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장사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부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면담, 성장 배경에 대한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장사를 알 수 있으며,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점에서 글쓰기를 수행함으로써 부모의 생각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일대기를 기술해보는 것은 관계 증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서전 대필이 아닌 부모-자녀관계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 비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학업성취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2].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업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3], 행복감에도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었다[4].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진로, 학교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 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5][6].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가족실태조사(3차)

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만족도가 부모의 관점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53.6%이고, ‘매우 만족’이 8.1%인데 반해, 자녀의 관점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37.6%, ‘매우 만족’이 28.1%로 나타나 상호 관점에 따른 큰 격차를 보였다[7][8]. 재미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가 보고한 부모-자녀 관계의 상관관계에서도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지각한 관계 수준과 아버지가 지각한 관계 수준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어머니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9]. 즉,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부각되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에 대한 지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비단 아동 및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 부모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의 지지경험은 노년기 부모와의 관계 불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양의식과 정적 상관을 보여 노년기 부모-자녀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10]. 이처럼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성장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이 나타나므로,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관계 만족도[11]와 가족 응집력 및 가족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정서,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 대인관계 및 삶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보고되고 있다[14-1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모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다[17][18].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통해 ‘그’ 부모의 시각에서 ‘그’ 부모의 성장사를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모와의 관계를 성찰하며 느낀 자신의 정서를 부모와 공유하면서 관계 증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부모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시도하는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교적 글쓰기와 자서전 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시간의 활용이 용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가정에서 수행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도모하게 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개발

1.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구성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글쓰기 프로그램의 검토와 더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자신 혹은 부모님의 자서전을 쓰는 일이 평소 일반인들에게 자주 경험되는 영역이 아니며, 글쓰기와 같은 전문적 영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도 조사보다는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을 시도하였다. 여러 번의 자문회의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과 자화집(그림) 프로그램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자서전적 글쓰기를 강의할 수 있는 교양학부 교수 1인, 글쓰기 강의와 실험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과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3인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육방법 및 진행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우선 자서전 글쓰기 교육이 선행된 후, 인터뷰 방법, 자서전의 구성항목 등에 대한 참가자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초기 글쓰기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서전의 양식을 통일하여 제공함으로써 처음 글쓰기를 수행하는 참여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추후 출판이 용이하도록 제안되었다.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 내용

회기	주요 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필자 및 부모의 참가 동의서 제출 •자서전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안내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서전 글쓰기 워크숍 •자서전 양식 제공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서전 대상자 면담일정 작성 및 준비 -시간, 장소, 다과, 질문지 등 준비
4회기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건 정리(녹음기록에서 추출) -각 발달단계별로 의미 있는 사건 추출하기 •사진 및 그림 등 붙임 자료 정리하기 •부모님과 자서전의 주요 사건 발생 장소 방문하기 •부모님의 의미 있는 장소 여행 다녀오기 -사진자료는 이미 변해버린 의미 있는 장소의 모습도 상관없으며, 부모님과 함께 혹은 혼자서 자료 수집을 위해 다녀와도 됨 •각 회기별로 이미 제공된 자서전 양식에 기술해 온 글을 프로그램 운영자 및 연구보조원이 자서전에 맞도록 점검하는 일을 반복함
9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서전 최종본 정리 및 제출 •자서전 인쇄 •출판기념회
10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기념회는 부모님과 함께 해도 좋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인적 소회와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대필자 간 나누는 시간을 가짐

회기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참가자 모집 공지 후, 참여를 신청한 대상자들이 1회기에 참석하였다. 1회기에는 참가자 동의서와 자서전 대상자의 동의를 함께 받았다. 부모님의 견해와 상관없이 대필자만의 강력한 권유 등으로 수행될 경우 적절한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회기에서는 자서전 글쓰기 워크숍이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자서전 글쓰기 워크숍에서는 (1) 자서전의

개념, (2) 자서전 대필 글쓰기 서사 전략, (3)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쓰기 연습, (4) 자서전 작성을 위한 면담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질문, (5) 부모의 성장서사, (6) 부모와 대필자의 공감적(회복적) 성찰서사, (7) 사진, 그림 등 부수적 붙임 자료의 활용법, (8) 자서전 양식의 구성에 대한 설명 등을 교육하고 실습하였다.

3회기에서는 자서전 대상자와의 면담 약속을 미리 예약하고, 공통 질문 등과 같은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면담은 카페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도록 하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기기와 주요 성장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질문지, 노트 등을 준비하여 면담을 시작하였다. 1차 면담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자서전 대필 시작 동기를 설명하고 부모님의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지도하였다.

4회기부터 8회기까지는 각 대상자별로 면담의 일정이 상이하고, 또한 사건의 기술과 자료수집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실험군의 자서전 면담의 진행상황과 인쇄용 자서전 서적의 양식을 맞추어 주고 글쓰기와 문법 등을 점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필자는 부모님과 면담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에서 중요한 사건을 추출하여 선별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부모님의 각 발달단계별로 중요한 사건이 추출되면, 선별된 중요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심층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행동 그리고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주요사건이 정해지고, 주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 면담내용을 정리하도록 관리하였다. 주요 사건이 추출되었다면, 자서전 양식에 맞추어 비로소 자서전을 기술하였다. 이 때 자서전의 기술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술하면서, 부모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공감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부모님의 성장서사를 기술하고 난 후,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필자의 성찰서사를 기술하였다. 각 장의 사건을 부모님의 시각으로 기술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대필자의 이해, 느낌, 그리고 회복적 다짐 등을 적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부모님의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도 중요한 요소였다. 어릴 적 중요 사건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과 정서를 단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가장 적절하였다. 이러한 사진 자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제공받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다친 경험(사고) 등으로 인해 남은 상처 등을 지금 찍어서 넣을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꺼내와 사진을 찍어 삽입하도록 지도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추억의 회상과 이해를 더욱 자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 부모님의 사건 장소라든지, 초등학교, 고향집 등을 방문해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만일 고향집이 철거되었거나, 학교 등이 많이 변했다면, 변한 곳을 찍어 올리며 부모님과 그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부모님의 추억의 장소를 같이 그려보거나, 의미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해 대필자가 그림을 그려 넣어도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행 속에서 자서전을 위한 면담을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부모와 함께 부모의 추억을 되짚는 여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의 성장서사에 맞춘 여행일정을 계획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여행을 다녀오도록 지도하였다. 대필자가 부모님의 시각에서 현장을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9회기에는 완성된 자서전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서전은 프롤로그, 성장서사, 성찰서사, 에필로그의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인쇄 전에 자서전에 대한 오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10회기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출판기념회는 초기에 부모님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주중에 개최는 일정으로 인해 부모님의 참여가 본 연구에서는 제한되었지만, 후속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부모님의 참여를 고려한 출판기념회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출판기념회는 별도의 장소에 플랜카드를 걸고 간단한 식사나 다과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자서전의 제공과 자서전 작성을 통해 느낀 점을 나

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모님에게 자서전을 선물해 드릴 때, 본 자서전은 성인 전기까지의 자서전이며, 성인 후기의 자서전을 부모님이 지금도 써가고(살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아름다운 자서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도록 지도하였다.

2. 부모 자서전의 구성

프로그램의 회기별 운영에 따라 작성된 자서전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첫째, 자서전 대필의 글쓰기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글쓰기보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쓰기를 통해 부모님의 생각, 행동 그리고 정서를 생동감 있게 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둘째, 자서전의 목차는 프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에필로그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프롤로그에서는 자서전 작성과 부모님의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자서전 작성을 결심하게 된 동기, 그리고 막연한 자신의 기대 등을 가볍게 적도록 하였다.

셋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청년기, 성인기로 나눌 수도 있음) 등으로 구성된 본문은 성장서사와 성찰서사를 각 장마다 기술하도록 교육하였다. 성장서사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자료 등과 함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성찰서사는 각 사건 혹은 각 발달단계의 장마다 마지막에 자신이 대필을 통해 느낀 점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공감과 어떤 부분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부모님과 관계에 회복적인 성찰문을 기술할 수도 있었다. 나중에 자서전을 받아 읽은 부모님은 이 성찰서사 부분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장의 제목을 단순히 아동기, 청소년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미 있는 사건, 혹은 의미 있는 진술문 중에서 선택하여 장 제목을 구성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이다. 이 부분은 각 사건에 대한 성찰서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모님을 별도로 만나 면담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면서 느낀 총체적인 후기를 적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

들로 구성된 자서전은 제 1권 혹은 상권과 같은 성격에 해당된다. 즉, 아직 성인 후기, 노년기 등이 남아있으며, 자서전은 지금도 작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 제시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후반부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자서전의 표지는 대상자의 자서전, 회고록과 같은 일반적 형태의 제목이나 혹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했던 것과 같이 의미 있는 문구를 추출해서 자서전의 제목으로 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목 아래 부분에 출생연도는 있지만, 생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출생연도 후 ‘~’표시를 넣고 뒤는 비워두거나, ‘전편’ 혹은 ‘상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였다. 부모 자서전의 구성을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2. 부모 자서전의 주요 내용

구분	자서전의 주요 내용
글쓰기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서전의 글쓰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 •프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에필로그로 구성
자서전의 전체적 목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종료 후 자서전을 선물할 때, 성인 후기 자서전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함
프롤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필자가 부모님의 자서전 작성을 시작한 동기와 부모님에 대한 사전 기억 등을 기술함 •각 발달단계별로 면담을 통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대필함(성장서사) •사건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을 첨부
자서전 각 장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이 주신 사진을 삽입하거나, 사진이 없는 경우 대상자와 함께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여 같이 사진 찍어도 되고, 대필자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추억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어도 됨 -혹은 그림으로 그려 넣어도 의미가 있음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서전 대상자의 이야기에 대한 대필자의 생각(느낌)을 기술(성찰서사)
에필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필자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작성한 후 느낀 소회를 기술함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서울의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하였다. 먼저 9월 초에 2주간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글쓰기 교육을 수행하였다.

글쓰기 교육 후 자서전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접 일정을 잡는 가운데서 부모님과과의 거주지 차이 및 일정 등의 불일치로 자서전 작성이 불가능한 대상들은 모두 대조군으로 편입시켰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 82명이었으며, 실험군이 52명, 대조군이 3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와 함께 자세히 제시하였다.

2.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검사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대조군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집단 간 완벽한 무선배정을 수행하지 못하여 유사 실험설계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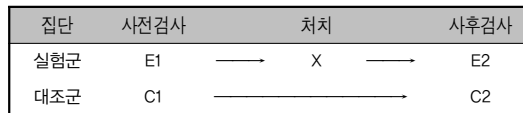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실험설계모형

프로그램의 운영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였다. 부모 자서전 프로그램은 2015년 3월부터 준비하여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과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9월 초에 개강 후 2주 동안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참여자를 1개 대학에서 모집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마친 후 참가자의 일부와 더불어 대조군을 모집하여 실험을 준비하였다. 대조군은 프로그램에 대한 처치 없이 사전 및 사후검사 설문지 작성만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상품을 제공하였다.

대필자에 대한 글쓰기 워크숍은 2015년 9월 17일에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글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교양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시집별 글쓰기와 자서전 작성을 위한 면담 질문들을 학습하였다. 그 외에 자서전 작성에 관한 성찰서사 부분과 자서전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연구자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 후에는 각 참여자별로 면담과 자서전 작성을 시작하였고,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본 연구자가 자서전의

구성과 내용을 점검하여 조언을 수행하였다. 자서전 작성 후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후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개인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 연구 도구

3.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의 측정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개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엄격 하위요인의 경우 총점을 산출할 때 역-채점하여 총점의 평점평균을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었다.

3.2 부모-자녀 애착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는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역하여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옥정(1998)의 애착 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20][21].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점평균을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이었다.

3.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족 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최태산과 홍경자(1997)가 Barns와 Olse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2][23].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자녀 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장애를 보여주는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문제형 의사소통 점수를 역-채점하여 총점

의 평점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험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 검정과 t 검정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효과 검증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확률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군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녹음 후 합목적 분석을 통해 재분류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합목적 분석법은 평정자 간의 독립적 분석과 자연스러운 합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분석법이다[24].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6시간동안 학습시킨 연구보조원 대학원생 3인을 평정자로 하고, 본 연구자가 감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부분은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종료 후 피험자가 느낀 경험을 보고하고, 이를 단지 재분류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합목적 분석법을 간략히 적용하였으며,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IV. 연구 결과

1. 사전 동질성 검증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 성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chi^2=11.01, p=.001$), 가족 수($\chi^2=.18, ns$), 형제 수($\chi^2=.53, ns$), 대상자의 학력($\chi^2=4.97, ns$) 및 가족의 경제수준($\chi^2=1.75, ns$), 자서전 대상자와의 관계 만족도($\chi^2=1.16, ns$)와 가족관계 만족도($\chi^2=4.16, ns$), 학교생활 만족도($\chi^2=3.47, ns$) 및 연령

($t=-1.14, n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 검증 (N=82)

변인	집단	실험군	대조군	χ^2/t	p
		n(%)M±SD	n(%)M±SD		
성별	남성	7(13.5)	14(46.7)	11.01	.001
	여성	45(86.5)	16(53.3)		
가족 수	3명 이하	16(30.8)	8(26.7)	.18	.915
	4명	30(57.7)	18(60.0)		
	5명 이상	6(11.5)	4(13.3)		
형제 수	외동	6(11.5)	2(6.7)	.53	.769
	두명	39(75.0)	24(80.0)		
	세명 이상	7(13.5)	4(13.3)		
대상자 학력	대졸 이상	27(51.9)	8(27.6)	4.97	.083
	고졸	22(42.3)	17(58.6)		
	중졸	3(5.8)	4(13.8)		
경제수준	하위	6(11.5)	3(10.0)	1.75	.418
	중위	34(65.4)	16(53.3)		
	상위	12(23.1)	11(36.7)		
대상자와의 관계	불만족	7(13.5)	3(10.3)	1.16	.561
	보통	21(40.4)	9(31.0)		
	만족	24(46.2)	17(58.6)		
가족관계	불만족	9(17.3)	3(10.0)	4.16	.125
	보통	13(25.0)	14(46.7)		
	만족	30(57.7)	13(43.3)		
학교생활	불만족	8(15.4)	2(6.7)	3.47	.177
	보통	16(30.8)	15(50.0)		
	만족	28(53.8)	13(43.3)		
연령		21.0±1.5	21.6±2.1	-1.41	.162
전체		52(63.4)	30(36.6)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서전 대상자와의 부모-자녀 관계, 애착 및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부모-자녀 관계($t=-.42, ns$), 부모-자녀 애착($t=-1.19, ns$), 부모-자녀 의사소통($t=-1.74, ns$)의 모든 연구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주요 연구 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N=82)

사전검사	실험군 M±SD	대조군 M±SD	t	p
부모-자녀 관계	3.59±.62	3.65±.53	-.42	.679
친밀	2.93±.80	3.13±.67	-1.17	.247
헌신	4.04±.71	4.08±.69	-.28	.781
존경	3.62±.89	3.49±.78	.63	.528
엄격	2.21±.75	2.11±.89	.54	.588
부모-자녀 애착	3.22±.49	3.35±.43	-1.19	.239
부모-자녀 의사소통	3.17±.61	3.42±.63	-1.74	.086
개방형	2.93±.70	3.17±.63	-1.53	.131
문제형	2.59±.60	2.33±.69	1.74	.085

2.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사전 동질성 검정 중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을 공분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하였다. 성별과 사전검사 점수를 공분산으로 통제된 후 분석하였고,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 중 엄격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 중 문제형 하위요인은 전체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는 역코딩(reverse-coding)하여 계산하였고, 하위요인을 표기할 때는 변수명의 의미를 반영하도록 역코딩하지 않은 원점수로 평점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사후 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F=7.09, p=.009), 하위요인 중 친밀(F=9.92, p=.002)과 존경(F=7.45, p=.008)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엄격 요인에서는 실험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나(F=5.04, p=.028), 헌신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 p=.896).

부모-자녀 애착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48, p=.013).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사후 검사에서 높았으며(F=5.04, p=.028),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고(F=17.44, p<.001), 문제형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63, p=.002).

3. 프로그램 사후 만족도 및 출판기념회

부모님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후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표 6],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추천 의향 평균이 4.04점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개인의 성장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쁨, 그리고 추천 의도까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6. 프로그램 사후 만족도 분석 결과

문항	M±SD
(1)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참여를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한 느낌이 든다.	3.89±.75
(2)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참여를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든다.	4.02±.69
(3)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3.96±.78
(4)자서전 대상자(아버지/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다.	3.85±1.04
(5)부모님은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	4.04±.92
(6)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	4.04±.73

프로그램 종료 후 별도의 준비된 공간에서 다과와 식사를 준비하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참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쇄된 자서전 책자를 나누어 주고 개인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소회를 나누는 동안 진술문을 녹음하고 기술하여, 대학원생 3인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이 유사한 항목별로 합의하여 분류하였다. 합의적 분석법은 단순히 특정 어휘의 중복보다는 이야기의 맥락이 중요하므로[24], 출판기념회에 모든 보조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보고 당시의 피험자의 비언어적 메시지와 문장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진술

표 5.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공분산분석 결과

사후검사	실험군(n=52)		대조군(n=30)		집단 F(p)	사전검사(공분산) F(p)	성별(공분산) F(p)
	M±SD	Adjusted M	M±SD	Adjusted M			
부모-자녀 관계	3.98±.60	3.98	3.64±.54	3.65	7.09(.009)	24.40(<.001)	.58(.450)
친밀	3.63±.80	3.66	3.19±.69	3.14	9.92(.002)	28.86(<.001)	.37(.544)
헌신	4.18±.73	4.16	4.10±.57	4.14	.017(.896)	18.76(<.001)	2.22(.140)
존경	4.08±.68	4.06	3.60±.82	3.64	7.45(.008)	33.63(<.001)	.001(.975)
엄격	1.96±.81	1.95	2.33±.88	2.35	5.04(.028)	27.46(<.001)	.14(.708)
부모-자녀 애착	3.66±.49	3.66	3.40±.40	3.40	6.48(.013)	18.17(<.001)	1.86(.177)
부모-자녀 의사소통	3.73±.66	3.77	3.28±.55	3.22	16.03(<.001)	21.77(<.001)	.05(.824)
개방형	3.62±.76	3.67	3.10±.65	3.01	17.44(<.001)	26.67(<.001)	.004(.950)
문제형	2.15±.65	2.12	2.53±.57	2.58	10.63(.002)	17.69(<.001)	.22(.639)

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평정자들이 총 11개의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문은 감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다시 읽으며 맥락상 유사한 내용을 합의적으로 재분류하여 3가지의 주요 주제와 기타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방적으로 피험자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감을 나누는 활동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적인 피험자의 내면을 분석하기 보다는 피험자가 보고한 내용을 단지 분류한 것에 해당되므로 질적 분석 결과를 프로그램의 효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피험자들의 보고에 따른 주요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님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서전의 참여를 통해 부모라는 역할이나 추상적인 부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냥 아빠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의 애기부터의 (성장)과정을 들으니까 그냥 한사람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아빠로서만 이제까지 안 것 같아요.”

둘째, 부모님의 특정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왜 저러실까?’하고 평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는데, 이번 자서전 대필을 통해 부모님의 성장사를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이었다.

“저는 원래 좀 아버지랑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았던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저에게 좀 집착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을 하면 필참을 하다 시피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족이 분열했다가 다시 합친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요 아빠를 했는데요. 근데 아빠가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피했는데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중략) 아버지가 좀 무뎡뎡하신 편인데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아빠의 어릴 때 환경을 듣다보니까 아빠가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빠가 그랬구나를 알게 되었고 아빠가 지금 엄청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셋째, 부모님과 대화의 통채 부모님과 자신이 행복감을 경험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새벽에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출근하신다고 다 일찍 주무세요. 10시, 11시 사이? 근데 저는 야행성이라 그때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집에 늦게 들어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 부모님은 주무셔서 얼굴을 못보고, 부모님은 5-6시에 출근하시니까 그때 제가 자서 대화를 거의 못하거든요. 평상시엔 얼굴도 못 보는데 이거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엄마께서 옛날이야기를 하시면서 엄청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엄마 손잡고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니까 행복했어요.”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출판기념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소감을 표현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으며, 행복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

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와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감과 존경심은 유의하게 높아졌고, 엄격함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 자서전 대필을 통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공동의 활동 시간 증가로 인해 친밀감이나 애착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양은 부모-자녀의 관계에 더 궁

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호 이해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5].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경우 자녀가 적극적으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에게만 집중하는 활동이므로 애착과 친밀감 등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존경의 경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아온 성장사를 기술하면서 존경심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26], 자서전 작성을 위해 부모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공감은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현신요인의 경우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으므로, 현신과 같은 요인의 증진은 단기간의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기 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우울증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울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친밀감과 존경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부모-자녀 관계는 자존감과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28],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애착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적응이나 개인의 정서적 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대학 환경적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29],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낮은 대학생들은 취업스트레스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30],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현재의 적응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진로와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최근 재혼가정의 증가로 인해 새 부모와 새 자녀 간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도되고 있으며[31], 이러한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부모와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데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증진을 가져왔다.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증진하였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서전 대필을 통해 이해하게 된 부모의 성장사와 그에 대한 대필자의 성찰서사는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는 자녀와의 잦은 접촉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의 태도에 상호 의사소통의 태도가 증진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서전 작성을 위한 면접에서도 부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태도는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3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증진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었으며[33],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인터넷 중독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4][35], 국내에서 행위중독의 대표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안 중 하나로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진로와 관련해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증진시켜 진로결정몰입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증진을 도모하는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과 의사소통 역량의 증진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관계와 정서, 적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관계와 소통은 반드시 나타나는 필수적 현상이며, 이에 대해 자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은 자녀 주도적인 프로그램임에

도 불구하고,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과정을 보이는 부모 주도형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이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대표적 강점으로 작용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대필자인 자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자녀의 지각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변화를 함께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계층에서 효과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중고생을 비롯한 초기 성인들에게도 확대하여 본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실험설계 방법에서 피험자들을 완전 무선화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무선 배치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부분이 피험자의 깊이 있는 의식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피험자의 응답을 분류한 것에 그쳤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피험자의 내적 성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적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정원, 강희신, 최소린, “부모애착표상과 가족진강성이 예비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4호,

pp.485-502, 2013.

- [2] 이중섭, 이용교,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비행,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65-88, 2011.
- [3] S. Yuan, D. A. Weiser, and J. L. Fischer, “Self-efficacy,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A Comparison of Europ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9, No.2, pp.261-280, 2016.
- [4] 전선옥, 김정원,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131-147, 2016.
- [5] 김현미, 임은미, “부모-자녀관계 및 변화가 청소년의 직업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4호, pp.57-73, 2012.
- [6] 어성연, 김지연,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몰입 수준,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2호, pp.55-74, 2015.
- [7] 국가통계포털, “부모-청소년 자녀와의 전반적인 만족도: 자녀관점(제2차, 제3차 비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10000935&vw_cd=MT_ZTITLE&list_id=154_15401_201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검색, 2015.
- [8] 국가통계포털, “부모-청소년 자녀와의 전반적인 만족도: 부모관점(제2차, 제3차 비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10000933&vw_cd=MT_ZTITLE&list_id=154_15401_201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검색, 2015.
- [9] H. Choi, M. Kim, C. G. Park, and B. L. Dancy,

- “Parent-child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Vol.50, No.9, pp.20-27, 2012.
- [10] 박인아, “기혼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 불만족이 노부모와의 관계 부적응 행동과 그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지니는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6권, pp.5-29, 2012.
- [11] 최성희, 전영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여가인식이 가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7-37, 2016.
- [12] 정연호, 류점숙, 신효식,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45-158, 2005.
- [13] 최미혜, 김경희, 권혜진, 김수강, “청소년의 성취용성과 가족기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1, No.1, pp.54-62, 2005.
- [14] 김재엽, 최선아, 전지수, “청소년의 가족구조,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9호, pp.207-231, 2016.
- [15]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G. H. Chung, “가족식사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4호, pp.125-149, 2013.
- [16] 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52-262, 2012.
- [17] 김종운, 이명순, “관계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서정신과학*, 제12권, 제1호, pp.61-76, 2009.
- [18] 양옥경, 김연수,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pp.225-261, 2004.
- [19] 최인재,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20] G. C. A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3, 1987.
- [21] 옥정,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2] 최태산, 홍경자,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권, 제2호, pp.291-322, 1997.
- [23] H. Barns and D. H. Ols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24] C. E. Hill, B. J. Thompson and E.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5, pp.517-572, 1997.
- [25] M. S. Hill,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A Multidisciplinary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9, pp.421-451, 1988.
- [26] H. Yoo, X. Feng, and R. D. Day, “Adolescent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Family Contex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2, No.12, pp.1858-1872, 2013.
- [27] 김동영, 박기정, 김효원, “한국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부모자녀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26권, 제2호, pp.120-128, 2015.
- [28] 최인재,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9호, pp.105-130, 2010.
- [29]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48-259, 2013.
- [30] 정구철, 이상학,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 16권, 제6호, pp.432-440, 2016.
- [31] 김효순.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262-280, 2015.
- [32] 임금옥, 강길현, 박희서,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청소년 비행의 인과경로에 있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pp.247-254, 2015.
- [33] 이수진, 문혁준,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6호, pp.587-598, 2013.
- [34]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9권, 제3호, pp.529-544, 2012.
- [35] 박중규, 배성만,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2호, pp.419-434, 2012.
- [36] 민지애, 유금란,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1호, pp.45-63, 2015.

저 자 소 개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